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라디오 방송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식품을 살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나요? 저는 일부러 유통기한이 길게 남은 제품을 고르는데요, 오늘은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사의 설정실험을 통해 결정됩니다. 설정실험은 보통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경우나 제품의 공정 또는 포장이 변경된 경우에 진행하는데, 실험을 통해 산출된 기간보다 20 ~ 30% 짧게 유통기한을 정합니다.

설정실험에는 실측실험과 가속실험이 있는데요, 예측되는 유통기한이 대개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측실험을, 그 이상인 경우에는 가속실험을 합니다. 실측실험으로 유통기한을 정하는 제품은 빵이나 두부, 어묵 등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이 대부분입니다. 제조사가 의도하는 유통기한의 약 1.3배에서 2배 기간 동안 실제와 동일한 유통 조건에서 제품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가장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비교적 유통기한이 짧고 유통 조건이 단순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긴 제품에는 비효율적이지요.

가속실험으로 유통기한을 정하는 제품은 통조림이나 식용유 등이 있는데요, 가속실험은 실제 유통 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단기간에 유통기한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제품의 실제 유통 온도와 2개 이상의 비교 온도에서 제품의 변화를 측정하고, 수학적 계산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합니다. 이 방법은 유통기한이 길고 유통 조건이 복잡한 제품에 효율적이지만, 계산 과정이 복잡해서 쉽게 활용하기 어렵고 실험을 가혹한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잘못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외국에서도 유통기한을 사용하는지 문의해 주셨는데요, 미국은 유통기한도 사용하지만 최종 사용일자인 소비기한 등도 함께 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통기한은 사용하지 않고 주로 소비기한을 사용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 님과 전화 연결을 통해 유통기한과 관련된 정보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 방송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요약하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여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여 청취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⑤ 방송의 중심 소재를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청취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2. 다음은 위 방송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계획의 일부이다. 방송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1부]

1. 오프닝

2. 주요 내용 전달

- ▷ 유통기한의 의미
- ▷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하는 경우 ㉠
- ▷ 유통기한 설정실험의 종류
- ▷ 유통기한 설정실험 식품의 예 ㉡
- ▷ 실측실험과 가속실험의 방법 ㉢
- ▷ 실측실험과 가속실험의 장단점 ㉣
- ▷ 외국에서 유통기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

3. 청취자 문자 메시지 소개

4. 클로징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은 방송 중 청취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이다. 방송 내용을 고려하여 청취자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청취자 1: 진공 포장을 하면 기존보다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 청취자 2: 실측실험이 가장 정확하다고 했는데 계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 청취자 3: 실측실험의 대상과 가속실험의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청취자 4: 유통기한 사용 여부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여행할 때 유용하겠어요.
- 청취자 5: 실험을 통해 산출된 기간보다 유통기한을 짧게 정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한 것이겠군요.

- ① ‘청취자 1’은 방송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배경지식을 언급하고 있군.
- ② ‘청취자 2’는 방송 내용을 언급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군.
- ③ ‘청취자 3’은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군.
- ④ ‘청취자 4’는 방송을 통해 접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⑤ ‘청취자 5’는 방송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된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4 ~ 7] (가)는 ○○시청에 제출할 건의문의 초고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고등학교 지역모니터링반 학생들입니다. 뉴스를 보면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 주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가 전국적으로 많이 ㉠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얼마 전부터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시의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에 관한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설치율이 낮아서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미 설치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화면이 손상되거나 작동이 멈춰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현재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는 시각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시각 장애인들이 ㉢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 가지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첫째,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설치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로 단기간에 설치율을 높이는 것이 어렵다면,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부터 단계적으로 안내단말기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점검 및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단말기 고장이나 오작동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든다면 보다 신속하게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에 음성 정보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정보 안내 버튼이 생긴다면 ㉣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율을 높이고 기존의 안내단말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그 기능을 보완한다면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는 문화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저희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학생 1: 자, 시청에 제출할 건의문을 검토해 보자.

학생 2: 저번 시간에 우리가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이용할 때 겪었던 문제 상황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해 봤어.

학생 3: 고생했어. 우선, 글의 첫째 문단부터 살펴보자. 내 생각에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추가해서 예의와 격식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학생 2: 그 생각은 미처 못 했네. 추가해 볼게. 그런데 둘째 문단에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에 관한 문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싶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생 3: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인근 도시에 비해 우리 시의 안내단말기 설치율이 낮다는 것을 보여 주면 좋겠어. [A]

학생 2: 그런데 글을 읽다가 갑자기 통계 자료가 나오면 읽는 데 불편하지는 않을까?

학생 1: 아니야. 오히려 구체적인 수치를 드러내면 문제 상황이 잘 드러날 것 같아.

학생 2: 그럴 수 있겠네. 조사해서 반영해 볼게.

학생 3: 그런데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음성 정보 안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

학생 2: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학생 1: 그랬구나. 교통 약자층을 위한다는 점에서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학생 3: 다음으로 셋째 문단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학생 1: 우리 시에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외국어 안내도 제공됐으면 좋겠어. [B]

학생 2: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 내용도 반영해서 써 볼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글을 좀 더 인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학생 3: 마지막 문단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

학생 2: 좋아, 그렇게 해 볼게.

학생 3: 그리고 ㉤ 시장님께 우리가 건의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어야 하니까 어법에 맞게 썼는지, 내용 흐름은 자연스러운지 꼼꼼히 점검해 보자.

학생 1, 2: 그래.

4. 다음은 ‘학생 2’가 (가)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상태를 언급해야겠어.
- ② 건의 내용의 현실적 수용을 위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단계적 설치를 제안해야겠어.
- ③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관련 게시판을 신설을 제안해야겠어.
- ④ 중심 소재와 관련된 현황을 제시하기 위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와 관련된 전국적인 추세를 활용해야겠어.
- ⑤ 신속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언급해야겠어.

5. [A], [B]의 답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고 있다.
- ② [B]에서 ‘학생 1’과 ‘학생 3’의 대답하는 의견을 ‘학생 2’가 절충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B]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 모두,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을 재진술하며 동의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 모두, ‘학생 3’은 ‘학생 2’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학생 2'가 (나)를 참고하여 (가)에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성]	[계획]
처음	▶ 첫째 문단에 '○○시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①
중간	▶ 둘째 문단에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시의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율은 60%인데, 우리시의 설치율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② ▶ 둘째 문단에 '지금은 버스정보 안내단말기가 시각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서 안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교통 약자층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③ ▶ 셋째 문단에 '외국인들을 위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에 외국어 안내 기능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④
끝	▶ 넷째 문단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기 위한 열쇠와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⑤

7. (나)의 ㉔를 고려하여 (가)의 ㉑~㉕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설치되고'로 고친다.
- ② ㉒: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리고'로 고친다.
- ③ ㉓: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난해함'으로 고친다.
- ④ ㉔: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시각 정보를'를 첨가한다.
- ⑤ ㉕: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8~10] 글을 쓰기 위해 (가)를 작성한 후, (나)를 수집하고 (다)를 작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 글의 목적: 지역 사회의 쟁점을 선정하여 하나의 관점을 택해 근거를 들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한다.
- 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
 - ㉑ 많은 주민들은 문화재 복원과 보존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 ㉒ 우리 지역 사람인 ○○사에 있는 탑의 현재 상태와 복원 혹은 보존의 이유를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있다.
 - ㉓ 건축 문화재 복원과 보존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 중에는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경우도 있다.

(나) 자료

㉔ 역사 에세이

고려 말기 흉년이 계속되어 백성들의 고통이 극심해지자, 왕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에 탑을 세웠다.

㉕ 지역 신문

얼마 전, △△ 마을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고택을 복원했다. 그런데 원래 쓰였던 나무를 구하기 어려워 다른 품종의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고, 이 고택의 건축 과정에 대한 과거의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붕을 복원하였다. 그 결과 고택 본연의 모습을 되살리지 못했다.

㉖ 전문가 인터뷰

"우리나라 건축 문화재들은 주변 건물이나 자연 경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탑은 주로 산속의 절 안에 있기 때문에 탑은 산의 형세와 절 내부 건축물들과의 조화를 중시하여 건축되는 것이 일반적이인데, ○○사의 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면 이런 점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다) 학생의 글

문화재 관리에서 중요한 개념이 복원과 보존이다. 복원은 훼손된 문화재를 원래대로 다시 만드는 것을, 보존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 ○○사에 있는 훼손된 탑의 관리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탑의 복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탑의 상층부가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탑이 놓여 있는 지반이 복원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탑을 박물관으로 옮겨 복원하자고 한다. 그들은 이를 통해 더 완전한 형태의 문화재를 대중에게 보여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복원보다는 보존이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탑을 보존하면 탑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 진정한 역사 교육이 가능하다. 우리 지역의 탑은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기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전란을 겪으며 훼손된 흔적들이 더해져 지금 모습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탑을 복원하면 이런 역사적 의미들이 사라져 그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다.

다음으로, 정확한 자료가 없이 탑을 복원하면 이는 결국 탑을 훼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지역의 탑을 건축할 당시 사용한 재료와 건축 과정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현재는 소실된 상황이다. 따라서 원래의 재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과거의 건축 과정에 충실하게 탑을 복원하지 못하면 탑의 옛 모습을 온전하게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탑을 보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탑을 보존하면 탑과 주변 공간의 조화가 유지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탑은 주변 산수는 물론 절 내부 건축물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세워졌다고 한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탑의 복원만을 목적으로 탑의 위치를 옮긴다면 탑과 기존 공간의 조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탑은 보존하는 것이 박물관으로 옮겨서 복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건축 문화재의 경우 복원보다는 보존을 중시하는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했을 때도, 탑이 더 훼손되지 않도록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키고 계승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8. (가)의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1문단에서 문화재의 복원과 보존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② ㉡을 고려해, 2문단에서 우리 지역의 탑이 훼손된 정도를 제시한다.
- ③ ㉢을 고려해, 2문단에서 탑을 복원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언급한다.
- ④ ㉣을 고려해, 4문단에서 탑의 건축 과정을 설명하며 복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부각한다.
- ⑤ ㉣을 고려해, 6문단에서 국제적 흐름을 언급하며 탑의 복원보다 보존이 긍정적임을 강조한다.

9.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근거로 하여, 우리 지역 탑이 세워진 역사적 의미를 제시했다.
- ② ㉡을 근거로 하여, 우리 지역 탑을 만들던 당시의 건축 재료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 ③ ㉢을 근거로 하여, 우리 지역 탑의 경우에 건축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복원이 어려움을 제시했다.
- ④ ㉣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우리 지역 탑을 이전해야 함을 제시했다.
- ⑤ ㉣을 근거로 하여, 우리 지역 탑은 절 내부 건축물들과 조화를 고려하여 세워졌음을 드러냈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A]에 대해 반박할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건축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은 역사 교육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 지역의 탑을 복원하면 사람들은 원형에 가깝게 완성된 탑의 모습을 보면서, 형태가 훼손된 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과거의 문화적 양식이나 아름다움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탑을 복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당대의 역사를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 교육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 ① 복원된 문화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게 만든다.
- ② 문화재를 보존해서 실제 경험하도록 해야 문화재에 담긴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③ 복원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내면화하려면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해 온 해외 사례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 ④ 과거의 문화적 양식이 문화재 복원으로 인해 계승되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⑤ 문화재의 보존만이 역사 교육에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은 복원을 통해 완성된 형태가 주는 교육적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라고 한다. 이형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그 의미가 서로 동일해야 한다. ‘이’와 ‘가’는 주어의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그 의미가 서로 동일하다. 하지만 의미의 동일성만으로는 이형태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각각의 형태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하면 이형태인지를 알 수 있다. 주격 조사 ‘이’는 자음 뒤에만 나타나고 주격 조사 ‘가’는 모음 뒤에만 나타나므로, 이 두 형태가 나타나는 음운 환경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가’는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형태 관계에 있다. 이형태는 음운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음운론적 이형태라고 한다. ‘막았다’의 ‘-았-’과 ‘먹었다’의 ‘-었-’은 앞말 모음의 성질이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므로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이와 달리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형태를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한다. ‘하었다’의 ‘-었-’은 ‘하-’라는 특정 형태소와 어울려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었-’은 ‘-았- / -었-’과 형태론적 이형태의 관계에 있다.

이형태는 중세 국어에서도 나타났는데 현대 국어와 차이점을 보이기도 했다. 현대 국어에서 부사격 조사 ‘에’는 이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앞말 모음의 성질에 따라 이형태가 존재했다.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는 ‘애’가, 음성 모음일 때는 ‘에’가, 단모음 ‘이’ 또는 반모음 ‘ㅣ’일 때는 ‘예’가 사용되었다.

1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이 사과는 민수한테 주는 선물이다.
① ㉠ ㉡
- 네 일은 내가 알아서 하리라.
㉢ ㉣
- 영수야 내 손을 꼭 잡아라.
㉠ ㉢
- 영숙아 민수에게 책을 주이라.
㉡ ㉣

- ① ㉠은 모음 뒤에만 나타나고 ㉡은 자음 뒤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가 나타나는 음운 환경이 겹치지 않겠군.
- ② ㉠과 ㉡은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 않으므로 이형태의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은 ㉠, ㉡과 비교했을 때, 특정 형태소와 어울려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형태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과 ㉣은 손아랫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격 조사로 형태론적 이형태의 관계이겠군.
- ⑤ ㉠과 ㉡은 앞말 모음의 성질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겠군.

1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탐구 자료
[중세 국어] 狄人(적인)人 서리(㉠) 가샤
[현대 국어] 오랑캐들의 사이에 가시어

[중세 국어] 世尊(세존)이 象頭山(상두산)(㉡) 가샤
[현대 국어] 세존께서 상두산에 가시어

[중세 국어] 九泉(구천)(㉢) 가려 하시니
[현대 국어] 저승에 가려 하시니

◦ 탐구 내용
㉠~㉢는 부사격 조사로, 앞말 모음의 성질에 따라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는 (㉤) 이형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	㉢	㉤
①	예	애	에	음운론적
②	예	에	애	형태론적
③	애	에	예	음운론적
④	애	예	에	형태론적
⑤	예	애	에	음운론적

13.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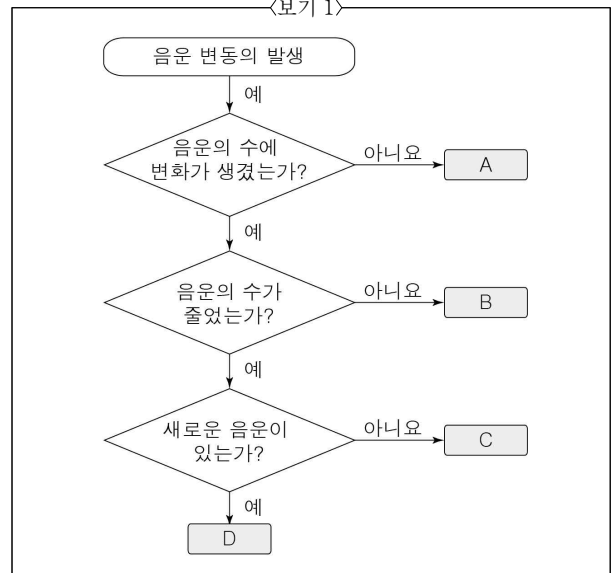
< 보 기 >

선생님: 오늘은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는 서술어 자릿수가 변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 문장들을 살펴봅시다.

㉠ 얼음이 매우 빠르게 녹았다.
㉡ 아이들이 얼음을 빠르게 녹였다.
㉢ 사람들은 산을 멀리서 보았다.
㉣ 그 산이 잘 보였다.

- ① ㉠은 피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
② ㉡은 사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
③ ㉢은 피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다르다.
④ ㉣은 피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
⑤ ㉤은 사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다르다.

14. <보기 1>의 탐구 과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기 2>

◦ 그는 열심히 ㉠ 집안일을 했다.
◦ 그녀는 기분 ㉡ 좋은 웃음을 지었다.
◦ 그는 나에게 말을 하지 ㉢ 않고 떠났다.
◦ 세월이 화살과 ㉣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 집이 추워서 오래된 ㉤ 난로에 불을 지켰다.
◦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 옮는 경우가 있다.

	A	B	C	D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15. <보기 1>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을 위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 2>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지1 「의존명사」

(어미 '-은' 뒤에 쓰여)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

-지2 「어미」

「1」(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그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 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 '않다', '못하다', '말다' 따위가 뒤따른다.

「2」상반되는 사실을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연결 어미.

-지3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묻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서술, 의문, 명령, 제안 따위로 두루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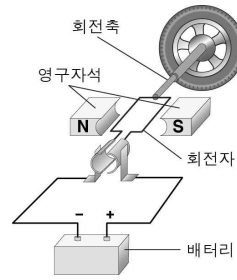
<보기 2>

- 내일은 비가 오겠지? ㉠
- 눈길을 걷은 지도 꽤 오래되었지. ㉡
- 친구 사이는 대등한 관계이지 ㉢
-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

- ① ㉠은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 할 때 쓰이는 <보기 1>의 '-지2「1」'에 해당하겠군.
- ② ㉡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보기 1>의 '-지1'에 해당하겠군.
- ③ ㉢은 '-었-' 뒤에 붙어 쓰인 종결 어미에 해당하므로 <보기 1>의 '-지3'에 해당하겠군.
- ④ ㉣은 상반되는 사실을 서로 대조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아 <보기 1>의 '-지2「2」'에 해당하겠군.
- ⑤ ㉣은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고 '마시오'가 뒤따르는 것으로 보아 <보기 1>의 '-지2「1」'에 해당하겠군.

-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기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 번 충전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은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회생제동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제동 장치는 자동차를 멈추게 하거나 속력을 줄이는 기능을 하는데, 회생제동 장치는 제동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자동차의 운행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림>

회생제동 장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기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전동기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림>은 전동기가 장착된 전기 자동차 구조의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전동기는 영구자석과 그 안쪽에서 회전할 수 있는 회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구자석 사이에는 항상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회전자는 배터리

에서 나오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으로 감겨 있고 자동차의 바퀴를 움직이는 회전축과 연결되어 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배터리에서 전동기로 전류가 공급되어 회전자의 도선에 전류가 ㉠ 흐르게 된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성되고 영구자석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과 상호작용하여 전자기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발생한 전자기력의 영향으로 도선이 힘을 받아 회전자는 회전하게 되고, 회전축과 연결된 바퀴에 회전력이 전달되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다. 이때 회전자의 회전력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영구자석 사이의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커진다. 결국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와 같은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동기는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으면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기로 기능이 전환된다.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배터리에서 전동기로 공급되는 전류가 차단되어 회전자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므로 회전자를 회전시키는 전자기력은 사라진다. 그러나 달리던 자동차의 관성으로 인해 바퀴는 일정 시간 굴러가기 때문에 바퀴가 회전자를 돌리는 상황이 된다. 바퀴가 회전자를 돌리는 데에는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바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제동 효과가 발생한다. 이때 도선으로 감긴 회전자 영구자석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 속에서 회전하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따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는 제동을 하면서 줄어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회생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는 전압변환 장치의 작용을 통해 배터리에 저장되어야 비로소 회생제동의 효과가 발생해서 주행 거리가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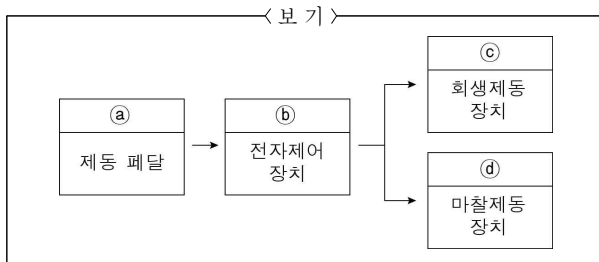
한편 회생제동 장치는 전기 자동차의 운행 상태와 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제동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급정지처럼 짧은 시간에 큰 제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회생제동 장치만으로는 필요한 제동력을 얻기 힘들고,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황에서는 생성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어 회생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에는 회생제동 장치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 사용되는 마찰제동 장치가 함께 장착되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으면 우선 페달에 있는 센서가 페달을 밟은 압력의 정도를 인식하여 전자제어 장치로 전기적 신호를 보낸다. 전자제어 장치는 이 신호를 바탕으로 페달을 밟은 압력의 정도에 따라 제동에 필요한 전체 제동력을 계산한다. 이와 동시에 현재 자동차 운행 상태와 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을 고려하여 회생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제동력과, 이를 전체 제동력에서 뺀 나머지 제동력을 계산해 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자제어 장치는 회생제동 장치에 신호를 보내 이 신호가 배터리와 전동기의 연결을 차단하여 회생제동이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마찰제동 장치에 신호를 보내 마찰제동의 정도를 조절한다. 이 과정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전체 제동력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16.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전자는 도선으로 감겨 있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 ② 전자기력의 영향으로 회전자가 회전하면 바퀴가 움직이게 된다.
- ③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에는 일반 자동차에 있는 제동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 ④ 회전자의 회전력이 사라지면 영구자석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자기장도 사라진다.
- ⑤ 전기 자동차의 제동력은 실시간으로 조절되어 상황에 따른 전체 제동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17. <보기>는 운행 중인 전기 자동차의 제동 과정을 주요 장치들을 중심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를 밟게 되면 전기 에너지로 돌아가던 회전자는 운동 에너지에 의해 돌아가게 되겠군.
- ② a에 있는 센서가 압력의 정도를 인식하면 a에서 b로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겠군.
- ③ b에서 회생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제동력을 계산하려면 a로부터 받은 신호와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을 고려해야겠군.
- ④ c가 b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배터리와 전동기의 연결이 차단되어 제동력이 발생하겠군.
- ⑤ d는 b로부터 신호를 받아 전체 제동력에서 c가 발생시킬 제동력의 크기를 계산하겠군.

1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그림>

회생제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그림>과 같다. 이때 승강기의 전동기와 전기 자동차의 전동기는 기본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가 동일하다. 탑승카를 올려 보내야 할 경우, ㉠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의 무게보다 가볍다면 균형추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전동기에 연결된 회전축이 회전하게 되므로 전기가 생산된다. 반면 ㉡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무겁다면 전동기는 전기를 소모하여 탑승카를 움직이게 한다. 한편 탑승카를 내려보내야 할 경우, ㉢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무겁다면 탑승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전동기에 연결된 회전축이 회전하게 되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반대로 ㉣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가볍다면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 ① ㉠의 경우 균형추에 작용하는 중력은 회전축을 돌린다는 점에서 달린 전기 자동차의 관성과 유사한 역할을 하겠군.
- ② ㉡의 경우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군.
- ③ ㉢의 경우 도선에 공급된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회전자의 회전력은 커지겠군.
- ④ ㉠과 ㉢의 경우 전기 자동차에서 제동 페달을 밟아 회생제동이 일어난 상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와 ㉣의 경우 승강기는 전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기를 제공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겠군.

19. <보기>는 밑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회생제동이 일어날 때에는 제동 과정에서 회전자를 돌리는 에너지가 (㉠) 에너지로 전환된 후 (㉡)의 작용을 통해 배터리에 저장된다. 그런데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는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 | | ㉠ | ㉡ | ㉢ |
|---|----|---------|----|
| ① | 운동 | 전압변환 장치 | 회생 |
| ② | 운동 | 가속 페달 | 마찰 |
| ③ | 전기 | 전압변환 장치 | 회생 |
| ④ | 전기 | 가속 페달 | 마찰 |
| ⑤ | 전기 | 전압변환 장치 | 마찰 |

20.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교실에 조용한 음악이 흐른다.
- ② 자루에서 쌀이 다 흘러 버졌다.
- ③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 ④ 우리가 헤어진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
- ⑤ 이 가스관 속에는 고압 가스가 흐른다.

[21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법원이 어떠한 책임원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다르게 배분되며 불법행위 억제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법경제학에서는 법원이 적용 가능한 책임원칙들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책임원칙을 찾고자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원칙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 ‘주의 수준’과 ‘주의 기준’이다. 주의 수준이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를 의미한다. 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의를 기울이는 데 드는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주의 비용은 커지지만, 불법행위 발생 확률이 줄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줄어든다. 주의 기준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주의 수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주의 수준이므로 법원은 이를 주의 기준으로 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원칙의 효율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책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책임원칙들을 살펴보자. ㉠ 비책임원칙은 불법행위는 발생했으나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 원칙이다. 반면 엄격책임원칙은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모든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 이 두 원칙은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와 달리 ㉡ 과실원칙은 가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이다. 이때 과실이란 법원이 부여한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과실원칙에서는 가해자에게만 주의 기준이 부여되므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고,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원이 불법행위에 대해 비책임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어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되므로, 비책임원칙하에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매우 낮아진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불법행위 억제에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반면 엄격책임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가 항상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높아진다. 이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 즉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유도된다. 그리고 법원이 과실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는 손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이 정해 놓은 주의 기준을 지키려 한다. ㉢ 결국 엄격책임원칙과 과실원칙은 모두,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원칙이 된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책임원칙과 결합하여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고려하는 책임원칙들이 있다. 먼저 ㉣ 기여과실은 법원이 피해자에게 주의 기준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피해자의 과실로 정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가 손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는 항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과실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된 경우, 우선 과실원칙이 적용되므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면, 즉 피해자의 과실이 입증되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자는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피해자가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결국 가해자에게만 최적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는 과실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되면 피해자에게도 최적의 주의 수준이 유도된다는 점에서 기여과실은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교과실은 기본적으로 과실원칙을 적용하되, 피해자에게도 주의 기준을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고,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가해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이 원칙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의 주의 기준을 지키고자 한다. 비교과실은, 양측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큰 쪽이 더 많은 손해를 부담해야 하므로 양측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주의 수준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비교과실은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책임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여과실 원칙하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보다 작아도 가해자가 항변을 통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과 구별된다.

21. 밑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비교과실의 한계
- ② 불법행위의 개념
- ③ 불법행위법의 기능
- ④ 주의 수준에 대한 정의
- ⑤ 비교과실과 기여과실의 차이점

22.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불법행위의 억제에 효율적이다.
- ② ㉡은 피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다.
- ③ ㉢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다.
- ④ ㉠은 ㉡과 달리 가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 ⑤ ㉢은 ㉡과 달리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23. 밑글을 바탕으로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②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가해자의 주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여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④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⑤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주의 기준을 부여해서 불법행위의 발생 확률이 최대화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영화 본 학생의 반응’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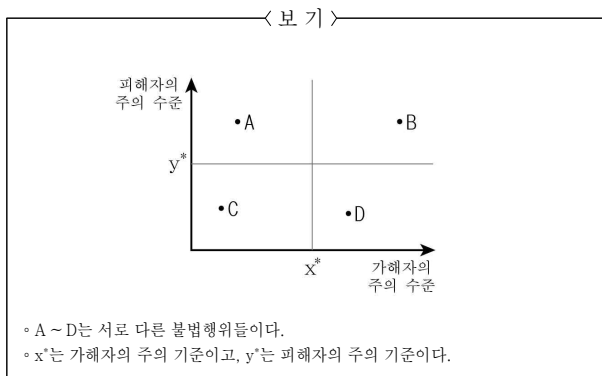
○ 영화 속 장면
갑은 을이 제조한 변압기를 구입하여 공장에 설치했는데, 한 달 후 변압기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고, 소화기로 진화하려는 순간 변압기가 폭발하여 갑은 큰 화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을은 변압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영화를 본 학생의 반응
여기서 갑은 피해자이고, 을은 가해자야. 그리고 변압기 폭발로 갑에게 화상을 입게 만든 것에 대해 엄격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 ① 학생은 갑에게 화상을 입게 만든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군.
- ② 학생은 갑이 입은 화상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고 생각하겠군.
- ③ 학생은 변압기가 폭발한 것과 관련하여 을의 주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겠군.
- ④ 학생은 갑이 화상을 입게 된 것과 관련하여 갑의 책임 여부를 고려하지 않겠군.
- ⑤ 학생은 을이 변압기 폭발에 대한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의 경우 가해자는 x*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는 y*를 지켰으므로, 비교과실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 ② B의 경우 가해자는 x*를 지켰으므로, 과실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
- ③ C의 경우 가해자도 x*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도 y*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과실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된 원칙을 적용하여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 ④ A와 C의 경우 가해자가 x*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과실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 ⑤ B와 D의 경우 가해자가 x*를 지켰으므로, 비교과실을 적용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실에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26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알고 있으면서 비도덕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런 비도덕적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과 도덕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자기 조절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도덕교육에 시사점을 주는 현대 심리학 이론들이 있다. 자기 조절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사고, 감정, 욕구, 행동 등을 바꾸려는 시도인데, 목표를 달성한 경우는 자기 조절의 성공을, 반대의 경우는 자기 조절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엘버트 밴두라의 ‘사회 인지 이론’과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자기 통제 힘 이론’이 있다.

- 밴두라의 사회 인지 이론에서는 인간이 자기 조절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런 특징을 가진 인간은 가지 있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행동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다. 밴두라에 따르면, 자기 조절은 세 가지의 하위 기능인 자기 검열, 자기 판단, 자기 반응의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 자기 검열은 자기 조절의 첫 단계로, 선입견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과 현재 자신의 행동을 감독,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판단은 목표 성취와 관련된 개인의 내적 기준인 개인적 표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자신이 하게 될 행동 이후 느끼게 될 정서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기 반응은 자신이 한 행동 이후에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서적 현상을 의미하는데,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된 개인적 표준에 부합하는 행동은 만족감이나 긍지라는 자기 반응을 만들어 내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라는 자기 반응을 만들어 낸다.

한편 바우마이스터의 자기 통제 힘 이론은, 사회 인지 이론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심리적 현상에 대해 자연과학적 근거를 찾으려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등장하였다. 이 이론에서 말하는 자기 조절은 개인의 목표 성취와 관련된 개인적 표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모니터링, 개인적 표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동기, 자기 조절에 들어가는 에너지로 구성된다. 바우마이스터는 그중 에너지의 양이 목표 성취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 조절에서 특히 에너지의 양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바우마이스터에 따르면, 다양한 자기 조절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 양은 제한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기 조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이 긴박한 욕구나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에너지의 일부를 남겨 두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도덕교육에서, 밴두라와 바우마이스터의 자기 조절 개념을 바탕으로 할 때 인간의 비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기 조절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밴두라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적 정당화나 책임 전가 등과 같은 자기 면책적 사고로 인해 자기 조절에 실패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기 판단을 할 때 자기 반응을 예측하는데, 교육 등의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한 보편적인 도덕규범인 도덕적 표준을 어겼을 경우 느끼게 될 죄책감을 예측한다면 인간은 자기 조절을 하여 도덕적 표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조절의 성공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기 판단 과정에서 자기 면책적 사고로 인해

죄책감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인간은 도덕적 표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것이며 이것은 곧 자기 조절의 실패에 해당한다. 이에 밴두라는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에 있어 자기 조절의 성공을 위해 ㉠ 자기 효능감의 신장을 강조한다. 자기 효능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 조절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이 신장되면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도 자기 조절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바우마이스터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 조절 과업들에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보편적 도덕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개인적 표준에 있어서도 자기 조절에 실패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 조절 과업에서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자기 조절 능력이 감소된 상태, 즉 자아 소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직후의 자기 조절 과업의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바우마이스터는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도 자기 조절의 성공을 위해 ㉡ 자기 조절의 자동화를 강조한다. 자기 조절의 자동화는 자기 조절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목표 달성 경험을 포함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한 자기 조절의 자동화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도 자기 조절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26.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특정 개념을 다루고 있는 두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② 특정 개념을 바탕으로 두 이론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하고 그 과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비교하고 있다.
- ③ 특정 개념과 관련하여 두 이론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두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특정 개념을 강조하는 하나의 이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보여주는 두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27. 윗글의 자기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우마이스터는 자기 조절에서 에너지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 ② 밴두라는 자기 조절 능력을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 ③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것은 자기 조절의 성공을 의미한다.
- ④ 밴두라는 자기 조절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도덕적 정당화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도덕적 표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밴두라는 자기 조절의 성공이라고 본다.

28.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이 지향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② 개인적 표준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연습하는 것을 강조한다.
- ③ 인간이 목표를 추구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④ 자연과학적 근거를 통한 인간의 심리적 현상의 이해에서 비롯된다.
- ⑤ 구체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부정한다.

29.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P 씨는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우선 그는 퇴근하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점심시간이 2시간인 자신의 근무 환경을, 그리고 편식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자신을 냉철하게 관찰하였다. 그래서 비교적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30분씩 충실하게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한 달 후 P 씨는 다짐한 대로 운동을 해서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지는 못했다.

- ① P 씨가 느낀 만족감은 다짐한 대로 운동을 한 후에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서적 현상이다.
- ② P 씨가 놓여 있는 근무 환경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자기 검열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적 요소이다.
- ③ P 씨가 비교적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정하여 매일 충실하게 운동하기로 다짐한 것은 자기 판단에 해당한다.
- ④ P 씨가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지 못해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개인적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한 자기 반응이다.
- ⑤ P 씨가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와 관련하여 자신의 편식하는 행동을 냉철하게 관찰하는 것은 자기 조절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30. 윗글의 학자들이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갑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규범을 배웠고 이를 신념으로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인류 전체에 재앙이 닥친 상황에서 자신의 상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라고 갑에게 지시했다. 갑은 우주선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죄책감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우주선을 만들었다.

○ 을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살아 왔기에, 업무와 관련된 자신의 실수를 숨길 수 있었지만 극심한 고민 끝에 상사에게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상사와 대화를 나눈 직후,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동료에게 을은 급히 할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 ① 밴두라: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상사의 지시는 갑의 자기 면책적 사고를 유발했겠군.
- ② 밴두라: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생각은 갑이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한 도덕적 표준에 해당하겠군.
- ③ 바우마이스터: 을이 동료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남겨 둔 에너지마저 모두 소모했으므로 을의 에너지는 고갈되었겠군.
- ④ 바우마이스터: 을은 극심한 고민 끝에 상사에게 자신의 실수를 털어 놓는 행동에 자신의 유한한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써서 동료에게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겠군.
- ⑤ 바우마이스터: 을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보편적 도덕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개인적 표준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밤차를 타면
아침에 내린다.
아아 경주역(慶州驛).

이처럼

막막한 지역에서
하룻밤을 가면
그 안전하고 잔잔한
영혼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천년을

한가락 미소로 풀어버리고

이슬 자욱한 풀밭으로

팬발로 다니는

그나라

백성. 고향사람들.

땅위와 땅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연꽃하늘 햇살속에

그렇저렇 사는

그들의 향렬을. 성(姓)받이를.

이제라도

갈까부다.

무거운 머리를

차창에 기대이고

이승과

저승의 강을 건너듯

하룻밤

새까만 밤을 달릴까부다

무슨 소리를.

발에는 족가(足枷)*.

손에는 쇠고랑이

귀양은 영혼의

무서운 형벌을.

이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하는

돌결마다

구릿빛 싯별건 그 무너를.

— 박목월, 「사향가(思鄕歌)」 —

* 족가: 죄수를 가두어 둘 때 쓰던 형구.

(나)

① 옷을 꺼입듯 한결 또 한결

추위가 더할수록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은

버들치며 송사리 품 안에 숨 쉬는 것들을

따뜻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② 철모르는 돌팔매로부터

겁 많은 물고기들을 두 눈 동그란 것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얼음이 맑고 반짝이는 것은

그 아래 작고 여린 것들이 푸른빛을 잃지 않고

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겨울 모진 것 그래도 견딜 만한 것은

㉠ 제 몸의 온기란 온기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 차디찬 알몸의 몸이 되어버린 얼음이 있기 때문이다

㉡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고 눈물지어본 이들은 알 것이다

햇살 아래 녹아내린 얼음의 투명한 눈물자위를

㉢ 아 몸을 다 바쳐서 피워내는 사랑이라니

그 빛나는 것이라니

— 박남준, 「따뜻한 얼음」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 시제를 통해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이 작품은 공간의 대립을 통해, 고향을 떠난 화자의 힘겨운 삶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공간에서 이상적 공간을 지향하는데, 이상적 공간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낙원과 같은 고향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고향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으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 ① ‘막막한 지역’에서 ‘영혼의 나라’를 떠올리는 것에서 현실적 공간에 있으면서 이상적 공간을 소망하는 화자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그나라’에서 ‘백성’이 ‘이슬 자욱한 풀밭으로’ ‘팬발로 다니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낙원과 같은 고향의 이미지로 볼 수 있군.
- ③ ‘땅위와 땅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그렇저렇 사는’ ‘그들의’ 모습은, 공간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④ ‘새까만 밤을 달’려서라도 고향에 가려는 화자가 ‘이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하는’ 것에서 고향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⑤ ‘귀양은 영혼’이 ‘손에는 쇠고랑’을 하고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에서 화자가 고향을 떠나 현실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군.

33.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인간의 행위에 빗대어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다른 대상을 보호하려는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자기희생적인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고통 속에서 고립되어 연약해진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예찬하는 가치를 지닌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34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디만큼 와았니?”

“신작로까지 와았다.”

이것은 오빠가 생각해 낸 놀이였다. 집을 향해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 고개를 넘고 개울을 건너고 신작로 길을 따라 재울재울 걷는 동안 배고픔과, 어쩌면 어머니가 아주 우리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잊을 수 있어 우리는 거의 매일 저녁 이런 문답놀이를 했다.

“어디만큼 와았니?”

“다 와았다.”

그러면 우리는 담장에서 뛰어내려 어슬어슬한 땅거미 속에 솟아오르듯 나타나는 어머니를 향해 뛰는 것이 놀이의 끝이었다. 때로 우리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먼 낯선 곳에서부터 집까지 쉬엄쉬엄 다리를 쉬기도 하며 떡도 사 먹고 한껏 녹장을 부리며 수십 차례 왕래를 하고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고 ㉠ 오빠는 개울에 빠졌다거나 산골이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갔다는 대답으로 내 울음을 터뜨리게 하곤 했다. 땅거미는 제법 깊어져 동구 밖의 신작로가 널어 놓은 광목천처럼 희게 떠올랐다. 어디까지 와았니, 어디까지 와았니, 내가 짜증스럽게 잇달아 채근을 해도 오빠는 ‘정자나무까지 와았다’라는 대답을 잊은 듯 숨을 죽이고 눈을 크게 떴다.

(중략)

사실 그때의 일은 빛 바랜 천연색 사진처럼 대단히 암시적이고 몽상적인 분위기로 남아 있어, 대개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러하듯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한껏 공상이었는지 분명치 않았다. 그런대로 그날 저녁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이상하게 마음이 쓸쓸함과 정다움으로 호젓이 젖어들곤 했다.

[A]

오빠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은 풍뎡이를 땅에 묻고 일곱 밤이 지나면 나비가 된다고 했고 또 꽃씨를 먹고 햇빛에 나와 앉아 있으면 뱃속에서 꽃나무가 자란다고 했다. 미역 다발이나 김 따위를 잔뜩 이고 행상을 나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여름 저녁 나는 무논에 돌 떨어지듯 튕뎡뎡 울어대는 뚝뚝 소리들 들으며 뚝뚝뚝뚝 뚝뚝새, 노래를 불렀다.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하는 구절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부르며 어서어서 오빠가 커서 엄마가 장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 노래처럼 내게 **비단 구두를 사오게** 될 날을 꽤나 절박하게 소원했던 것이다.

속초 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오빠의 편지가 회사로 날아온 것은 그저께 오후였다.

비슷하게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외로움을 나누기로 했다는 극히 피상적이고 짧은 내용 끝에 **돈을 부치라**는 추신이 붙은 **엽서를 받은** 후 ㉡ 거의 2년 동안 한 자 소식도 없어 나는 오빠에 관한 소식이라면 부고거나 유서쯤이 아닐까 각오했던 터여서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

그러나 **편지**는 유서도 부고도 아니었다. 스물이 갓 넘은 율개는 아이를 낳고 젖몸살로 앓아 누웠고 뱃속에서부터 영양이 부실했던 아이는 그나마 젖구경도 못 해 팔 개월이 지나도록 뒤채지도 못한다는 것, 오징어 찹이 되면 **틀림없이** 갇을 테니 5만 원만, 아니 3만 원만이라도 급히 보내 달라는 내용이 비명처럼 적혀 있었다.

“시간을 내어 내가 한번 가거나 널더러 다녀가라는 것이 도리

인 줄을 알지만.....” 오빠는 덧붙였다. 직장에 매인 몸이니 굳이 시간을 낼 것은 없고 또한 구차하게 사는 모양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 돈만 부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 **“네게 도움은 못 줄망정 괴로운 부탁만 늘어놓는 못난 오빠를 용서해라.”** 하는 추신이 붙어 있었다.

오랜만에 쓰는 편지인 탓인지 술을 마신 탓인지 꽤 긴 내용은 술꾼의 주정처럼 두서가 없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지니고 있던 **금반지**를 받아 쥐고 나간 이래 나는 오빠에게서 세 번의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은 매번 그렇게 절박했다.

나는 균형을 잃고 흔들거리는 글씨에서, 몇 밤을 망설인 끝에 술기운을 빌려 비로소 었드려 끄적거렸을, 자괴지심에 가득 찬 오빠의 얼굴과, 손에 쥔 볼펜이 거북스러울 정도로 물결에 거칠어졌을, 예전에는 유난히 가늘고 곱던 손을 떠올리며 가슴이 막혀 왔던 것이다.

- 오정희, 「겨울 뚝뚝기」 -

(나)

#89. 바닷가

석양에 물든 바닷가. 유봉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철가>를 부른다.

유봉: (♫) 속절없이 가 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헛돌 쓸데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B]

송화의 소리가 들려온다.

송화(E.): 아버지의 마지막은 날마다 사철가를 부르시다 어느날 갑자기 돌아가셨다. 내게 더 짐이 되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목숨을 끊으신 것만 같아.

#90. 유봉의 임시가요

송화는 유봉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봉의 뜻을 계속 이야기한다.

송화: 아버지는 어떡하면 내게 더 큰 소리를 심어 주실까 평생토록 그 일만 생각하다 가셨다.

동호, 일어선다.

동호: 내가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못 하는 이유를 누나도 언젠가는 알게 될거야.

그러면서 송화에게 **탄피 반지**를 건네준다.

동호: 이거 내가 탄피로 만든 반지야. 누나 주려고 오랫동안 잔직하고 있었네. 자주 닦아 주지 않으면 녹이 슬어.

동호는 탄피 반지를 쥐어 주고는 그 길로 돌아선다. 붉은 수수밭을 걸어가듯 동호의 얼굴. ㉣ **송화의 얼굴. 눈물이 글썽거린다.** 탄피 반지를 꼭 쥐는 송화의 손.

동호(E.): 나는 누이와 그런 식으로 헤어진 걸

(중략)

#131. 송화가 일하는 술집 안

술집 문을 열고 술꾼과 동호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는다. 술꾼이 주인 여자에게 소리를 같이 듣자고 청한다.

송화(E.): (♫) 돌아진 섬에 먹으나 굶으나 물질을 해영 한푼 두푼 모인 금전

술꾼: (주모를 향해) 아즈망, 우리도 같이 듣게마십.

송화(E.): (♫) 서방님 용돈에 아- 다 나간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주인 여자가 방문을 열자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는 송화의 모습이 보인다.

송화: (♫) 이어도사나 아- 이어도사나 요넬 젓엉 어딜 가나

#132. 송화의 집으로 가는 길, 밤

밤길을 동호와 송화가 나란히 걸어온다.

송화(E.): (♂) 진도 바다 아- 글로나 가자

밤길을 걸으며 동호와 송화가 이야기를 나눈다. 밤길에 익숙치 않는 동호가 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다.

송화: 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다?

동호: 알고 오기는. 누나 어렸을 때 제주 뱃사람한테 얻어 왔다는 뺨이 생각나서.

송화: 조심해라.

동호: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이나 찾아 해맸네.

#133. 송화의 집 앞, 밤

송화가 사는 집 앞에 당도한 두 사람. 불이 켜져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간다.

송화: 내가 사는 집이다.

동호: 불이 켜져 있네.

송화: 장님이 무슨 밤낮이 있건나만 사람 사는 집 표시로 늘 켜두고 지내. 무당이 살던 집인데 내가 세 들어 살아. 들어가자.

#134. 송화의 집 부엌 - 망 안

송화는 부엌으로 들어가고 동호는 부엌으로 난 문 옆에 앉아서 동호에게 줄 라면을 끓이기 위해 준비하는 송화를 지켜본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두 사람.

(라디오 프로그램 소리)

동호: 판소리는 아주 작파*했어? 누나가 이어도 타령이 뭐야?

송화: ㉠ 이어도가 정말 있으면 그 섬으로나 들어갈까 하고 왔는데 그 소리로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네. 애는 잘 자라냐?

동호: 어, 많이 컸어. “전설따라”네.

송화: 나 그거 안 빼고 들어.

송화의 단정한 책상 위로 라디오와 점자판이 보인다.(책상 C.U.) 라면 냄비에 달걀을 깨서 넣는 송화의 능숙한 손. 동호가 송화에게서 상을 받아 방 안으로 들어간다. 라면을 먹으려다 송화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탄피 반지를 슬쩍 본다.

동호: 반지가 옛날 그대로네.

송화: 닦지 않으면 녹슨다고 내가 그랬잖아.

송화는 탄피 반지를 만지작거린다. 라면을 맛있게 먹던 동호가 송화를 올려다본다. 송화는 동호의 시선을 느끼고 수줍은 듯 고개를 떨군다. 치맛자락으로 버선발을 가리는 송화의 손.(손 C.U.) 다 먹은 상을 물리면서 동호는 중동 이야기를 꺼낸다.

동호: 나 중동 갈려고. 사막에다 수로 놓는 공사판에.

송화: 거긴 왜?

동호: 돈 벌려고.

송화: 돈은 벌어서 어디 쓰게?

동호: 누나 맘 편히 소리 공부할 수 있는 집 한 칸 지으려고. 나도 누나 때문에 요 점자공부 좀 했네. 누나 심심할까봐 라디오 연속극 테이프도 모아 놓고, 누나한테 동호의 말을 들으며 송화는 눈물짓는다.

동호(E.): 읽어줄 재미난 책 구한다고 소설도 꽤 많이 읽었네. 글을 먹던 동호, 눈물 흘리는 송화를 올려다본다.

- 이청준, 「천년학」 -

* 작파: 어떤 계획이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두어 버림.

34.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여 인물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장면을 빈번하게 교차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여 이야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갈등을 제시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3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오빠’의 대답을 들은 ‘나’의 걱정이 내재되어 있다.
- ② ㉡에는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오빠’로부터 편지를 받은 ‘나’의 긴장감이 내재되어 있다.
- ③ ㉢에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나’에게 괴로운 부탁을 하는 ‘오빠’의 미안함이 내재되어 있다.
- ④ ㉣에는 자신을 생각해 주는 ‘동호’와 이별하고 있는 ‘송화’의 슬픔이 내재되어 있다.
- ⑤ ㉣에는 ‘동호’와 헤어진 후 자신의 꿈 때문에 생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송화’의 절망감이 내재되어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서사가 드러나는 갈래에서 서사의 간극은, 서사의 흐름에 따르는 모든 사건들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생기는, 사건 사이의 틈을 의미한다. 그래서 독자는 제시된 사건들 속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서사의 간극에 숨겨진 인물의 정서나 상황의 지속 및 변화를 추측하면서 이야기를 완성해 간다.

- ① (가)에서 ‘비단 구두를 사’울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했던 오빠에게서 ‘돈을 부치라는’ ‘엽서를 받은’ 것을 통해 오빠에 대한 나의 정서가 변화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군.
- ② (가)에서 ‘금반지’를 들고 나간 오빠가 ‘틀림없이 갚’겠다는 돈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통해 오빠의 형편이 점차 나아져 가는 방향으로 상황이 변화했음을 추측할 수 있군.
- ③ (나)에서 송화가 ‘탄피 반지’를 받으며 들은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옛날 그대로’의 상태로 지니고 있는 것을 통해 동호에 대한 송화의 정서가 지속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군.
- ④ (나)에서 ‘애는 잘 자라냐’라는 질문에 ‘많이 컸어’라고 대답하는 것을 통해 송화와 동호가 떨어져 지냈던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임을 추측할 수 있군.
- ⑤ (나)에서 동호가 ‘점자공부’를 하고 ‘라디오 연속극 테이프’를 모았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송화에 대한 동호의 정서가 지속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군.

37. 편지와 뺨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을 제시하여 인물의 처지가 드러나게 한다.
- ② 사건의 진실을 밝혀 인물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한다.
- ③ 현재의 사건을 언급하여 인물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한다.
- ④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인물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 ⑤ 인물의 가치관을 제시하여 인물의 비판적 의식을 드러나게 한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나리오에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클로즈업(C.U.)과 이펙트(E.)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클로즈업은 인물이나 배경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어 주로 장면의 의미 등을 부각하는 방법이고, 이펙트는 화면에 음향을 삽입하여 장면 속 상황을 전달하거나 장면 전환을 하는 등의 효과를 준다.

- ① #89에서의 이펙트는 #90에서 송화의 대사로 이어지면서 장면이 전환되고 있다.
- ② #131에서의 이펙트는 화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방문 안 송화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효과로 활용되고 있다.
- ③ #132에서의 이펙트는 #131의 송화의 노래와 이어지며 장면이 전환되고 있다.
- ④ #134에서 송화의 책상에 대한 클로즈업은 송화의 일상을 부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⑤ #134에서 송화의 손에 대한 클로즈업은 송화를 원망하는 동호의 시선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부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군이 다음날 또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났으나, 낭자 생각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겨우 오십 리를 가서 숙소를 정했다. 저녁밥을 먹고 혼자 여관방에 쓸쓸하게 누워 있으니, 낭자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 마치 병이 날 것 같은지라. 선군은 낭자가 신신당부하던 말도 무시하고 또 하인들 몰래 집으로 돌아갔다. 선군이 담장을 넘어 낭자의 방에 들어가니, 낭자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낭군은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잊지 못해 이처럼 밤에 왕래하시나이까? 만일 이러시다가 도중에 천금처럼 귀한 몸에 병이라도 나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낭군이 끝내 저를 잊지 못할 것 같으면 내일 밤에는 제가 낭군의 숙소로 찾아가겠나이다.”

“낭자는 규중의 처자로 밤에 다니기 어려운데, 어떻게 먼 길을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이외까?”

“그러하오면 좋은 묘책이 있나이다.”

이어서 낭자가 그림을 하나 내주며 말하기를,

“이 그림은 제 용모를 그린 것이오니, 도중에 빛이 변하거나 제 몸에 이상이 생긴 줄 아옵소서.”

하고 서로 이별하려 했다.

이때 마침 상공이 동별당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낭자의 방에

서 또 낭자의 소리가 들리는지라. 혼자 말하기를,

“이상하도다. 낭자처럼 절개 있는 여자가 어찌 외간 남자를 만나리오? 또한 우리 집 담장이 높고 하인이 천여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외간 남자가 마음대로 출입하는고?”

하며 의혹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처소로 돌아가더라.

낭자는 시아버님이 문밖에 오신 줄 알고, 또 아이를 달래는 척하며 말하기를,

“아가야 아가야, 이제 밤이 깊었으니, 어서 자자꾸나.”

하며 끝내 낭군이 온 자취를 감추었다.

시아버님이 처소로 돌아가신 뒤에 낭자가 **선군을 위로하며** 말하기를,

“시아버님께서 낭군이 왕래하는 줄 알고 수시로 창밖을 순찰하오니, 어서 바빠 숙소로 돌아가소서.”

하니 선군이 슬픈 마음을 억누르고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상공이 낭자에게 물었다.

“네 낭군이 서울에 간 뒤로 혹 도적이 들까 하여 내가 집을 안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네 처소에서 낭자의 목소리가 들려 이상하게 생각했노라. 그런데 또 어젯밤에 네 방에서 낭자의 목소리가 들렸으니, 그것이 어찌 된 일인지 사실대로 말하거라.”

이에 낭자가 대답했다.

“밤이면 심심하기에 매월을 불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나이다. 제가 어찌 외간 남자를 방 안에 불러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겠나이까?”

상공은 낭자의 말을 듣고 일단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자기가 분명 낭자의 방에서 낭자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지라, 아무래도 이상하여 매월을 따로 불러 묻기를,

“네가 요사이 낭자의 방에 간 일이 있었느냐?”

하니 매월이 아뢰었다.

“소인이 몸이 피곤하여 요사이 낭자의 방에 간 일이 없나이다.”

상공이 더욱 수상히 여겨 매월을 꾸짖어 말했다.

“요 며칠 사이에 밤마다 낭자의 방에서 외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기에 내가 낭자에게 물으니 ‘밤에 심심하여 매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했느니라. 그런데 너는 ‘가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하도다. 어떤 놈이 낭자의 방에 드나들면서 간통하는 것이 틀림없도다. 너는 낭자의 방을 잘 감시하고 있다가 그놈이 어떤 놈인지 꼭 알아오너라.”

이에 매월이 **상공의 명**을 받고 **밤낮으로** 낭자의 **방을 감시**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낭자의 방에서 이상한 자취를 발견할 수 없는지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낭자를 질투하던 첩 매월은 하인 돌쇠와 모의하여, 낭자가 몰래 외간 남자와 만난다며 상공을 속인다. 매월의 말을 믿게 된 상공은 분노하여 낭자를 심문한다.

매를 맞아 갈기갈기 찢긴 살가죽은 죄 없는 사람이 죽기를 재촉하니, 누명을 벗기 어려운 낭자의 신세도 가련하거니와 누명을 쓰고 어찌 더 살 뜻이 있으리오?

낭자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셨다며 이렇듯 크게 분노하시니, 제가 변명할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자세하게 살펴보시옵소서. 제 몸이 비록 이 세상에 내려왔으나 제 절개는 얼음과 눈같이 굳고 깨끗하며, 저 또한 ‘두 지아비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을 알고 있나이다. 게다가 낭군과

저는 하늘이 정해 준 인연이 분명하거늘, 제가 어찌 외간 남자와 간통하겠나이까? 아무리 욕례를 갖추지 않은 며느리라 할지라도 어찌 제게 이처럼 흉한 말씀으로 꾸짖으시나이까?” 하며 목 놓아 쉼게 우니, 그 불쌍하고 애달픈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더라.

그러나 상공은 남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더욱 꾸짖기를, “제상가의 규중에 외간 남자가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일이다. 하물며 네 방에 외간 남자가 출입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어찌 너를 범상하게 다스릴 수 있으리오?” 하고 하인에게 호령했다.

“각별히 엄하게 매질하라!” 상공의 명에 따라 하인들이 남자에게 매질하니, 꽃처럼 고운 남자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눈처럼 하얀 피부에서는 피가 샘처럼 솟아났다.

남자가 혼미한 가운데 겨우 정신을 차려 여쭙기를, “사실 그사이 낭군이 두 번 왔다 갔나이다. 낭군이 과거 보러 떠나던 날 겨우 삼 십리를 가서 숙소를 정했는데, 저를 생각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거늘, 제가 이리저리 달래어 보냈나이다. 그런데 또 다음날 깊은 밤에 낭군이 돌아오셨기에 제가 억지로 내보냈나이다. 제가 이 일을 숨기고 즉시 아뢰지 못한 것은 부모님의 꾸중이 있을까 두려워서인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나이까? 귀신이 시기하고 조물주가 투기한 탓에 ㉠ 이렇게 누명을 쓰고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제가 무슨 면목으로 부모님께 말씀을 아뢰며, 또한 낭군의 얼굴을 어찌 마주할 수 있겠나이까?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하나이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다가, 낭군과 자식을 생각하여 차마 죽지 못하고 땅에 엎어져 기절하더라.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숙영낭자전」에는 남성에게는 입신출세가, 여성에게는 정절이 요구되던 당대의 자유롭지 못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당시의 여성들은 폭력적 억압을 당하기도 했는데, 비극적 삶을 살아가던 여성들은 부분간의 애절한 사랑을 꿈꾸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억압된 욕망을 표출하기도 했다.

- ① 남자가 ‘선군을 위로하’고 선군이 슬퍼하며 ‘숙소로 돌아’가는 것에서 부분간의 애절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군.
- ② 남자가 ‘상공의 명’에 의해 ‘밤낮으로’ ‘방을 감시’당하는 것에서 여성들의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군.
- ③ 남자가 ‘하인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에서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의 비극적 삶이 드러나고 있군.
- ④ 선군이 남자와 이별하기 싫어함에도 ‘과거 보러 떠나’는 것에서 입신출세가 요구되는 남성의 삶이 드러나고 있군.
- ⑤ 남자가 상공의 꾸짖는 말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에서 선군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못해 고난을 겪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군.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독백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40.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군’은 ‘남자’가 당부한 말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 ② ‘선군’의 요청에 따라 ‘남자’는 자신의 용모를 그린 그림을 ‘선군’에게 주었다.
- ③ ‘상공’이 ‘선군’을 꾸중할 것이 걱정되어 ‘남자’는 ‘매월’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④ ‘선군’이 방문한 사실을 ‘상공’에게 숨기기 위해 ‘남자’는 ‘아이’를 달래는 척했다.
- ⑤ ‘상공’은 ‘매월’이 최근에 ‘남자’의 방에 가지 않은 것을 질책하기 위해 ‘매월’을 불렀다.

42. ㉠에 드러나는 ‘남자’의 심리를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 ② 맥수지탄(麥秀之嘆)
- ③ 수구초심(首丘初心)
- ④ 이심전심(以心傳心)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황미시절(黃梅時節) 떠난 이별 만학단풍(萬壑丹楓) 느꼈스니
상스일념(相思一念) 무한스*는 저도 나를 그리련이
구든 언약 집흔 정을 닐들 어이 이것슬가
인간의 일이 만코 **조물(造物)**이 시긔련지
삼ᄃᆞ삼추(三夏三秋) 지나가고 **낙목한천(落木寒天)** 또 되엿니
운산이 머릿쓰니 소식인들 쉬울손가
딕인난* **긴 한숨의 눈물**은 몇때런고
흥중의 ㉠ 불이 나니 구회간장 다타간다
인간의 물로 못끄난 불이라 업것마는
넌 가삼 틈우는 불은 ㉡ 물노도 어이 못끄난고
즈네 사정 넌가 알고 넌 사정 즈네 알니
세우스창(細雨紗窓) 저문 날과 소소상풍 송안성*의
상스몽(相思夢) 놀라 썩여 퍽퍽키* 싱각ᄃᆞ니
방춘화류(芳春花柳) 초흔 시절 강누스찰 경기돏츠*
일부일 월부월의 운우지락(雲雨之樂) 협홉할제*
청산녹수 증인두고 **초싱빅년 서로 빙세**
못보와도 병이 되고 더디 와도 성화로세
오는 **글발** 가는 **스연** 즈즈획획 다정턴이
엇지타 한 별니가 역여조기(怒如調飢) 어려웨라*

— 이세보, 「상사별곡(相思別曲)」 —

- * 상스일념 무한스: 임 그리워하는 마음이 무한함.
- * 딕인난: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안타까움.
- * 송안성: 기러기 울음 소리.
- * 퍽퍽키: 어떤 일에 대처할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아 답답하게.
- * 강누스찰 경기돏츠: 누각과 사찰의 경치를 따라.
- * 운우지락 협홉할제: 남녀 간의 정을 나누는 즐거움으로 화목하게 지낼 때.
- * 역여조기 어려웨라: 임을 그리워하는 정이 간절하여 마음이 힘들.

43.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설의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상사별곡」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진솔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임을 기다리며 느끼는 상사의 아픔을 토로하며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또한 이별의 원인과 이별이 지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를 외적 요인으로 돌리려 한다.

- ① 화자는 ‘인간의 일’이나 ‘조물’과 같은 외적 요인을 임과 재회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떠올리고 있다.
- ② 화자는 ‘삼ᄃᆞ삼추’와 ‘낙목한천’이라는 계절의 흐름을 통해 임과 이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긴 한숨’과 ‘눈물’을 통해 임을 기다리며 느끼는 상사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는 ‘초싱빅년’을 ‘서로 빙세’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임과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오고 가는 ‘글발’과 ‘스연’을 임과 이별하게 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45.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과거를 잊게 하는 소재이고, ㉡은 화자가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② ㉠은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화자의 상황 해결이 어려움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소재이고, ㉡은 화자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하는 소재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는 소재이다.
- ⑤ ㉠과 ㉡은 모두 자연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